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습.

제주사회복지인 다(多)모인다

7일 학생문화원서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제주 사회복지인의 대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및 생활(이용)인,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제주특별

자치도여성자원봉사센터의 '난타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수상자 명단 2면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이용)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마련된다. 국제가정문화원과 제주아주민센터 등 11개팀이 나서 열띤 경연을 벌인다. 대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15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1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70만원, 50만

원이 주어진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2009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마련됐다.

사회복지미래연구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공개심사가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10분 정도 직접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뒤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최우수 프로그램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원이, 우수 프로그램에는 상장 및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이용 가능 품목도 월 1회 5개서 3개로 축소

푸드마켓 이용방법조정

이달부터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용방법이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누구나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9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푸드마켓에서 가져갈 수 있는 품목도 월 1회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조정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푸

드마켓을 찾는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부품 확보는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용방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7일 사랑나눔 푸드마켓 개장 이후 2개월여가 지난 8월 26일 현재 1일 평균 123명, 총 617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푸드마켓을 방문했다. 이들이 가져간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로 운영을 정상화해 많은 분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용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또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의 식품나눔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의=758-1377, 후원계좌는 301-0024-0336-61(농협중앙회), 11-01-035561(제주은행)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8월 식품 기탁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수(1.5ℓ) 4000개, 감귤주스(150ml) 4000개 ▲ 제주은행=생필품류 1500개 ▲ (주)금강축산유통=육류 490kg ▲ 제주종합식품=채소류 690kg ▲ 명도안관광휴양목장=유기농채소류 30kg ▲ 장일광씨=유기농채소류 5kg

지면소개

- 종합 2·3면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
시설 탐방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전국아울람파크골프대회·소식마당
장애인예전 준비 만전·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III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안내

- 2009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프레젠테이션 공개심사
- 일시/장소 : 2009. 9. 18(금) 14:00 ~ 17:00,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관 : 사회복지미래연구회
- olleh kt제주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
- 일시/장소 : (예선) 2009. 9. 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본선) 2009. 9. 11(금) 13:00, KT제주본부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KT마케팅단
- 2009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 일시/장소 : 2009. 9. 10(목) ~ 11(금), 한화리조트
- 주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6만3091원

올해보다 2.75%인상...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
4인가구 현금급여기준도 114만1026원으로 인상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6만3091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최저 생계비를 2.7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4.8%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50만4344원, 2인 가구는 85만8747원, 3인 가구는 111만919원, 5인 가구는 161만5263원, 6인 가구는 186만7435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3년마다 국민생활수준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올해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지불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현금급여기준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110만5488원에서 114만1026원으로 올렸다. 1인 가구는 42만2180원, 2인 가구는

71만8846원, 3인 가구는 92만9936원, 5인 가구는 135만2116원, 6인 가구는 156만320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일 경우 114만1000원에서 50만원을 뺀 64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이 안 보이면 어떨까” 제주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연수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최, 제주영지학교(교장 이용철) 주관으로 제주영지학교에서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장애체험 연수는 교원들에게 장애인 가상 체험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관을 인식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장애체험연수에는 유·초·중등 교원 57명이 참가했다.
이번 장애체험 연수에서는 지체장애 체험, 청각장애 체험, 시각장애 체험, 전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주도, 저소득층 위한 소액보험사업 추진

한부모가정 아동 등대상 재단이 95%를, 본인은 5%를 부담하게 된다. 아동에게는 미래설계자금으로 매년 3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90만원이 지원되며, 입원과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보험계약 기간은 2012년 9월까지 3년이다.
장애인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한다.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용자 또는 종사자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저소득층 소액보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8월 초에 체결했으며, 이달 말에 소액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1,100,000	1,100,000
난치병환아후원	100,000	0
자원봉사후원	510,000	510,000
복지사업후원	2,465,000	2,114,09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유공자 명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두승(아라중합사회복지관) △변인자(대정읍사무소) △김석영(황아수산) △(주)금강축산유통 △미래상호저축은행
-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강정희(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문부자(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강충근(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김유진(제주장애인요양원) △양윤국(제주영송학교) △김향희(제주애덕의집) △김강미(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정선(제주정신요양원) △오은옥(제주양로원) △윤경숙(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장월선(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고애춘(제주요양원) △한전 KPS(주)제주사업소 한마음봉사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장 표창 △김태웅(창암재활원) △문양숙(제주케어하우스) △박미선(성이시돌요양원) △김태훈(B.A.T korea봉사단) △김미연(길직업재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양순선(제주동초등학교) △안정심(신성여자중학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공로상 △이원민(대림산업(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봉사상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 △고문자(제주시생활체육협의회) △강동섭(길직업재활센터) △구좌읍장애인지원협의회

“문자를 음성으로 들려줘요”

제주도, ‘보이스아이’ 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글자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이스아이(Voice Eye)는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읽기 불편해 비전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들려주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6600만원을 들여 모든 부서 컴퓨터에 설치했으며, 전자문서용(ED Writer), 한글문서용(보이스아이 메이커 For HWP), 간행물용(보이스아이 메이커 For Quark) 등 3개 분야다.
제주도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문, 도정홍보 책자 등 각종 인쇄물의 우측상단에 디지털 문자정보를 2차원 바코드 심벌로 암호화해 압축 및 저장한 보이스아이 심벌을 표시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보이

스아이 리더기를 이용해 심벌위에 대면 인쇄출판물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들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점자명함만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한계성으로 휴대편번호, 이메일 등 자세한 표시가 어려웠으나, 보이스아이 심벌에 명함 내용을 압축 저장함으로써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줌으로써 점자습득이 안된 장애인들의 점자해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점자인쇄물 발간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등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캠프 열려

‘200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캠프’가 8월 20일부터 이틀간 아로마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설 간 연합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시설 상호간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 한림소망의집 주간보호시설 등 도내 7개 주간보호시설이 참가했다.

시설탐방

(22)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 구심체 역할 톡톡

여름의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오후,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을 찾았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21세기 행복한 사회는 안정된 가정 속에 밝은 어린이와 푸른 청소년, 웃음 띤 장애인, 건강한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지역주민의 파트너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실천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사회복지를 증진해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 개관한 이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을 비롯해 멘토링사업, 학교 사회사업 뿐만 아니라 효나눔 노인복지센터, 단비아동가족 상담센터, 단비아린이집 등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둘이 함께 꿈꾸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날개달기(1+1)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습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프로그램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도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오히려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상위 50위권 내 학생들을 멘토로 구성하고 있는 것. 고등학생이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무색할 정도로 책임감, 자부심 그리고 멘티와의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사업에는 Holland 진로탐색, 인터넷



“전문 프로그램 제공...주민 디딤돌 역할 수행”

중독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신의 흥미와 능력, 진로유형,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시간과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습관에 대한 형성, 그리고 자신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갖도록 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2007년 4월에 문을 연 단비아동가족 상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준강과 공동으로 ‘우리아이정서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을 병행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법인 명칭을 어린이재단으로 변경하자 우리 복지관이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오해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지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9월중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운호 관장은 “과거 복지관의 역할이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우리 복지관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제주도, 기초생활보장 ‘최우수’... 대통령 표창

제주시는 국무총리 표창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대상자 발굴 및 보장종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급여 조정 실적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수 ▲긴급지원 활성화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대상자 발굴 및 보장종지와 기초생활급여 조정부문, 차상위계층 대상 긴급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8월에는 어려운 계층의

경제난 극복과 복지 수혜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일시장과 노인복지회관, 임대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민대상 복지시책 설명과 상담을 실시,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시생계비 신청·접수(145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도 전국 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 국무총리 표창과 2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제주시는 그동안 신규수급자 발굴 활동을 벌여 지난해 2463가구를 찾아내 8월 말 현재 8200가구 1만5100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급여조정 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소득이 기준치 이상 발생한 1915가구에 대해 보장종지를 내렸고, 생계비 지원 감소 7518건 및 소득이 줄어 급여지원을 늘린 1만4737건 등을 추진했다.

김순심·오정희씨 김만덕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8일 제30회 김만덕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순심(62·봉사부문·사진 위)씨와 오정희(66·경제인부문·사진 아래)씨를 수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봉사부문 수상자 김순심씨는 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순심씨는 봉사단체인 ‘달명회’(선주협회 부인모임) 회장직을 맡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10년 넘게 월 1회 무료급식과 경로잔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밀난잔 전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경제인부문 수상자 오정희씨는 제주에서는 처음으

로 동거 부부 및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등 기업의 이윤을 지속적으



로 사회에 환원했으며, 여성경제인으로서 전국여성 패션대전, 해외 패션쇼 등에 제주 갈옷 등을 출품해 제주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1·3세대 통합교육 ‘올드 앤 뉴’ 인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에 4300여만원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1·3세대 통합교육 ‘올드앤뉴(Old & New)’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주시 오라동에 체험학습 교육장을 조성,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8개 어린이집에서 총 169명이 방문, 체험활동을 했다.

기본학습프로그램으로 손수건 천연염색과 천연비누 만들기 중 1가지를 선택해 체험할 수 있고, 전통혼례체험과 대형

윷놀이, 투호, 고리던지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제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은빛 인형극단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올드앤뉴(Old & New)’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는 창의적·감성적·인성적 체험을 통해 1세대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체험학습 교육장에는 20명의 노인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제주시니어클럽(745-3998~9)。

PGW급·PGST1급 통합 부문 김성남·이의순씨 PGST2급·일반부 통합 부문 최병익·임정애씨

우승

제3회 전국어울림파크골프대회

제3회 제주협회장배 전국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전국에서 3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8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주경마공원내 말 테마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 결과 김성남(제주)씨와 이의순(경북)씨가 PGW(휠체어)급과 PGST1(헌손)급 통합 부문에서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PGST2(양손)급과 일반부 통합 부문에서는 최병익(서울)씨와 임정애(충북)씨가 우승했으며, 단체전에서는 인천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올해 4월에 파크골프를 시작해 PGST2(양손)급과 일반부 통합 부문에서 7위를 차지한 채영식(여·52·광주)씨는 “공기도 맑고, 시설도 좋은 곳에서 화합할 수 있는 대회에 참가해 기쁘다”고 말했다.

대회를 진행한 제주특별자치



도 장애인골프협회 최정수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교통편이 부족해 조금 아쉬웠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응으로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번 대회에 출전, PGST2(양손)급과 일반부 통합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골프협회 한영주 회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어린이부터 노

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쉽고 자유롭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장애인골프협회 신종호 회장은 “제주의 매력과 더불어 즐거운 대회였다”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파크골프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21-3426.

〈조순옥 명예기자〉



※파크골프
=Park(공원)와
Golf(골프)의 합
성어. 1983년

일본 홋카이도 마쿠베츠 지역에서 시작됐다. 소규모 공원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다른 운동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배우기도 쉽고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장점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어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적인 스포츠이다.

일반 골프와 같이 예의를 중시하는 룰과 용어를 사용하며,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페어웨이, bunker, OB 지역 등 경기장의 구성은 같다. 다른 점은 홀의 길이가 짧고, 특수 제작된 지름 6cm의 플라스틱 공을 클럽 1개로만 경기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미취학아동에 성교육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 3월부터 제주 산남지역에서 성폭력 범죄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학 아동을 위한 ‘Self Body-Guard’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남지역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시청각자료를 이용, 아동 권리 및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아동 스스로의 대처능력 강화가 목적이다.

상반기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해 미취학 아동 7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5일까지 신청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이다.

문의=732-1391~2.

소/식/마/당

장머들경로당서 문화공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과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는 8월 19일 장머들경로당에서 ‘방학 중 찾아가는 학교 주변 경로당 문화공연’을 실시했다. 이날 공연에서 화북교 꿈만애(꿈을 만드는 아이들) 동아리 학생들은 댄스, 풍물, 노래, 풍선아트 등 각양각색의 장기지량을 선보이고,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와 안마 등을 해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찜질방 체험 ‘뜨거운 것이 좋아’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8월 11일 입소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찜질방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행사는 중증장애로 인해 처음 찜질방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으며, 뜨거운 찜질방에서 시원한 음료와 삶은 달걀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위탁가정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실시



해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김행담 의원, 이상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해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새로운 터전인 작업장이 완공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진을 위한 일터로 탄탄한 역할을 하게 됐다.

창암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창암복지재단은 8월 14일부터 1박 2일간 웅지리조트에서 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주한라대학 채수경 교수는 섭식, 제주평화인권센터 홍길홍 강사는 인권, 창암재활원 박광수 원장은 장애인복지정책변화와 흐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름등반과 제트스키 체험 등이 이어졌다.

영락복지관 행복한 여름캠프



노인교육문화사업으로 해피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7월 30일 하계현장 학습으로 절물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행복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산줄기를 타고 내리는 시원한 자연과 함께!’란 슬로건을 내건 이날 캠프에선 절물 오름 오르기와 산림욕, 명랑운동회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추억을 만들었다.

가롤로의집 바다야 놀자' 진행



가롤로의집은 8월 3일 이호해수욕장에서 바다체험 ‘바다야 놀자’를 실시했다.

가롤로의집 생활인과 직원들은 이날 반복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바다체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접해봄으로써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식구들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며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가졌다.



신나는 여름 정혜캠프 실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입소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0일과 11일 서귀포화생문화원 야영수련장에서 ‘2009 신나는 정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캠프 기간 장애인들은 가족·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 등을 높였으며, 소중한 가족애를 재확인했다.



재가 장애인과 뮤지컬 관람

제주도공무원노조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은 7월 25일 아가의집 생활인,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난타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과 함께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장애인체전 참가 선수 ‘구슬땀’

육상·수영 등 15개 종목출전...64개 메달 획득목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총 64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5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제주도선수단은 15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총 200여명이 출전한다.

제주도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8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28개 등 모두 64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록(점수)종목에서는 육상 휠체어레이싱에서 베이징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홍석만 선수가 4년 연속 4관왕에 도전하고 있다. 4년 연속 두 자리 수 메달

을 획득하며 제주도선수단의 효자종목으로 자리잡은 육상에서 제주도선수단은 올해에도 15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며 전략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이클과 수영에서 30개 이상의 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영의 강세가 주목된다.

단체구기 및 개인단체 종목에서는 휠체어농구가 경기도와 금메달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이며, 볼링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

배드민턴에서는 국가대표 김성훈 선수의 메달 획득이 유력하며, 톤볼에서도 5개 정도의

메달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처녀 출전하는 요트의 조순만 선수와 댄스스포츠선수들은 백중세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김철희 총무운영팀장은 “7월 하계훈련을 시작으로 8월 10일부터 집중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상대팀과 선수에 대한 전력분석을 토대로 입상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실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체육시설과 무더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끈기있게 훈련에 매진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현경애 명예기자〉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 수영페스티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회장 임태봉)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수영선수와 가족 등 330여명을 초청, 표선해수욕장과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 수영페스티벌’(이하 평화배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생활체육 제주바다 수영대회 ▲제주바다사랑 페스티벌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로 진행됐다.

8월 1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 생활체육 제주바다수영대회’에는 전국 장애인수영선수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자유형 50m·100m·200m로 나뉘어 열렸다. 이어 오후에는 ‘제14회 표선해변백사대축제’와 연계해 바닷가의 보물을 찾아라, 광어잡기 체험, 가족 모래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

련된 ‘제주바다사랑 페스티벌’을 즐겼다.

다음날에는 ‘제3회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가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열렸다. 지체, 청각언어, 시각,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부와 학생부로 구분해 50m 개인경기와 4명이 한조를 이뤄 출전, 100m 단체전이 치러졌다.

또 수영을 배우고 있는 어린 장애아동들을 위하여 번외경기로 ‘킵관 잡고 수영하기’ 등도 진행됐다.

제주도장애인수영연맹 관계자는 “앞으로는 제주의 지역축제들과 연계한 대회와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내년에 전국 공식대회로 유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주관했으며, 제주도장애인체육회와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 준강이 후원했다.



지체장애인 바다체험대회 개최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2009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 바다체험대회’가 8월 1일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주최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6년 처음 개최돼 3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휠체어나 목발 등 보장구에 의지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마무선봉사회의 비상시응급구조요령 강의와 바나나보트 및 래프팅체험, 누구나수영 등 5개의 해양체험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및 노래자랑, 증명사진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바로잡습니다 -



8월 1일자 5면 ‘시각장애 1급 오순연씨,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삼바 1위’ 기사 사진설명에서 오순연씨의 위치는 ‘왼쪽에서 2번째’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2번째’입니다.

“가장 특별한 경험, 다시 가고 싶어”

동제주복지관 필리핀봉사활동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해외봉사단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의 자원봉사단체 ‘행동하는 양심’ 해외봉사단 23명과 함께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주시의 지원과 봉사자들의 참가비로 진행된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는 필리핀 안티폴로 시티의 로랄랜드, 파이파이, 파콕 등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선아트, 종이접기, 한국전통놀이 등을 가르쳐 주는 문화교육 봉사, 중·석식 지원 배식 봉사, 마을보수공사 등의 노력봉사를 펼쳤다.

또 경제적으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이주여성 중 한 가정을 선발해 친정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른 이주여성의 친정집에도 방문해 멀리 떨어진 딸과 사위, 손자의 영상편지, 제주특산물 등을 전달하고 집을 수리해줬다.

이주여성의 집수리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

한지 믿기지 않는다”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서른세 해를 살아오며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다. 봉사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가는 차에 매달리며 ‘bye, bye’ 하던 필리핀 아이들,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달라며 수줍게 웃던 필리핀의 젊은 엄마, 오물더미에서 쇠붙이를 줍던 노인과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기회만 된다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동제주복지관 박정민 사회복지사는 “매일 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자들의 식사까지도 나눠줬지만 모자라 1시간씩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다 돌아서는 아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차후 예산지원 등 여건이 허락된다면 꾸준히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센터이·미용봉사

제주다문화가정센터 행복나눔모임은 8월 15일 키멘슨전사회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5월부터 제주다문화가정센터에서 이·미용기술을 배운 결혼이민자들은 봉사단체를 결성, 매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림/마/당

■ 8~10일 퍼시픽호텔서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제12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열린다. 영혼의 울림! 뜨거운 몸짓! 하나되는 우리!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여성장애인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술표현을 펼쳐 사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여성장애인활동가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756-4980.

■ 에니어그램 전문가과정 1·2단계 워크숍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교육·상담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과 27일 에니어그램 전문가과정 1·2단계 워크숍을 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에서 진행한다.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에니어그램 1단계를 수료하면 에니어그램 검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726-3277.

■ 남제주요양원, 26일 가을운동회 개최

남제주요양원은 요양원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가을 운동회’를 오는 26일 대정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문의=794-2232.

칼럼

미니 경사로



김길웅
수필가·시인

현직에 있을 때 교직원 주차장에 장애인 공간을 따로 만들도록 한 적이 있다. 반듯하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골랐고, 보통보다 더 넓은데다 색깔을 입혀 돋보이게 했다. 흰 테두리 안에 휠체어 그림과 밑바닥의 파란 바탕색, 그 파란색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상징적인 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수의 약자 위한 최소한의 배려

그 공간은 이를테면 지정된 자리인데, 내가 재직해 있던 상당 기간 동안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다고 비장애인이 그곳을 선볼

리 이용하려 들지도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래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장애인의 속내까지 들여다보고 도와주려는 행위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쳐다보며 낮 찡그리는 일은 거의 없다.

예전에 장애인을 일컫는 말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험하고 낮 뜨거운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격세지감을 맛보게 된다. 흐뭇한 일이다. 건강한 사회는 일부 계층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할 때, 그런 느낌은 폐부에까지 닿는 것이다.

내가 찾아가는 W도서관에 작은 변화가 목도됐다. 책임자가 바뀌더니 현관 입구 베란다로 진입하는 양쪽에 경사로가 놓였다. 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긴 경사로라 해봤자 고작 두어 걸음 내딛으면 그만인 아주 짧은 것이다. 아스콘으로 높은 턱을 메우고 양쪽에 철재 난간을 세웠다. 그 초(超)미니로 깎아놓은 노면에 파란색을 칠하고 가운데는 휠체어 그림을 그려 넣었다. 휠체어 표시를 한 그림이 노면을 가득 채운 모양새다. 그래도 구색을 갖춘, 명색

이 경사란다.

한 뼉 턱이 장애인에겐 산보다 높다고 한다. 경사로는 소수의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늦게나마 장애인을 위한 길을 뚫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다. 그 경사로를 일반인들이 예사롭게 이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눈앞에 특별한 그림이 보이면 살짝 비켜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애인주차장이용 비장애인 눈총

한번은 그곳 너른 마당에 딱 하나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중형차 한대가 멈춰서고 있었다. 우연히 눈길에 갔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4인 가족이 차에서 내리는데 운전자는 말할 것 없고, 그 부인과 두 아이 모두 말짱하다. 빈 주차 공간이 없으니 도리 없잖으나 할지 모른다.

그래도 대명천지에 말짱한 사람이 그곳에 주차하면 벌과금이 물린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러고서 젊은 부모가 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못 볼 것을 본 뒤라 기분이 썰뽀름하다. 그 날은 우울한 마음에 종일 맨송맨송했다.

시론

감동을 낳는 슈퍼맨들의 이야기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판 슈퍼맨들’의 활약은 진한 감동을 낳는다.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의 고통,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발령에 오른 슈퍼맨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위대한 선물과도 같다.

장애극복한 이들의 아름다운 삶에서 희망이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역사상 시각장애인 신분으로 첫 유학길에 올라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교육철학박사가 된 강영우씨(56)의 삶이다.

강 박사는 중학교 1학년 시절 축구공에 맞아 실명한다. 이 충격으로 부모가 돌아가시지만 여기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18살이 돼서야 중등과정 맹인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학문을 파고들어 끝내 훌륭한 인간드라마를 일궈냈다. 강 박사는 부시 전 미국대통령시절 7년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한 후 현재 UN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인물이 됐다. 강 박사는 말한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지질탐사 도중 차량 전복사고로 목 아랫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이 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47)의 삶이다. 이 교수는 불과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다. 움직이지도,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강단에 복귀하면서 ‘한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오늘에 이른 원동력은 자신의 장애를 불행으로 보지 않고, 그 장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마음가짐이었다. 특수 마우스로 입김을 불고 빨면서 IT기술을 통해 눈으로도 강의하는 그의 왕성한 활동은 감동의 눈물 그 자체다. 이 교수는 말한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희망이라는 것을 준 하늘에 감사한다”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활동 중인 이승복 박사(44)의 삶이다.

이 박사는 1973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고교시절 세계적인 체조선수를 꿈꾸며 공중회전 훈련을 하다 턱을 바닥에 부딪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사지마비 장애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박사는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슈퍼맨 닥터 리’로 통하는 그의 활약상은 가슴 뭉클하게 한다. 이 박사는 말한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고.

시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장애라는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들 모두를 슈퍼맨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기까지 하다.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또 다른 슈퍼맨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김범훈
제주일보 논설위원

기고

결혼이민자도 자원봉사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김정림
제주다문화가정센터 교육팀장

오늘도 윤영금씨는 여섯 살짜리 큰 아들과 두 돌이 지난 작은 아들을 업고 아침 일찍 다문화가정센터에 들어선다. 태어난 지 반년이 좀 지난 아들을 업고 자원봉사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활동해 온 지도 벌써 2년이 된다.

제주에 시집온 지 7년 된 윤씨는 조선족인 자기도 제주의 특수한 풍습과 언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한다. 하물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할까? 이런 생각에 ‘무엇부터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중 2007년 말, 뜻이 맞는 다문화가정 남편과 아내들이 모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2008년 초 사단법인 다문화가정센터를 설립했다.

자금이 부족했던 탓에 센터장과 몇몇 남편들이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밤늦게까지 내부공사를 해야 했고 나머지 정리는 윤씨 몫이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어린 아들을 업고 강행군한 덕에 작지만 아담한 다문화가정 울타리를 만들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센터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윤씨는 당연히 선배언니, 친정엄마 역할을 했다. 센터에 오는 어린 동생들을 친동생처럼 맞아주고 그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 남편들과 시어머니와 어려운 소통을 시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뿐만 아니다. 결혼이민자 2세가 태어나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윤씨는 말한다. “제가 출산하고 나니 제일 그리운 것이 친정엄마였어요.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돼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 양육에 대해 잘 모르고 모든 것이 어설퍼요. 입덧이 심할 때면 모국 음식이 그리운데 제주에는 재료가 없어서 서울에서 택배로 불러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2년도 안돼 회원 수만 1000명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했다. 결혼이민자들이 담당하게 자원봉사로 실무를 보고 있고, 윤씨도 휴일이 따로 없이 조직운영팀장의 역할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

윤씨는 결혼이민자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한글을 배우는 것 외에도 직업정출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여러 가지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사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사리꺾기체험, 조개잡이체험,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캠프 및 체육대회 자원봉사, 추석음식만들기체험, 역새꽃축제 다문화음식시식회 자원봉사, 제주마축제 다문화문예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제주도민들과의 이해증진에도 큰 도움을 줬다. 그 외에도 감귤따기체험, 김치만들기체험, 썰매타기체험에는 남편들도 함께 동참을 하게 함으로써 아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했다.

남편들한테도 영금언니로 불릴 만큼 다문화가정에 친숙해진 윤씨는 오늘도 다문화가정센터를 알차게 이끌어가고 있다.

|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매년 2000만원 후원하는 대림산업 |

저소득 61가구에 '사랑의 보금자리' 제공

국내 유수의 건설사인 대림산업(주)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5년째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05년부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저소득가구의 주택을 깨끗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단장해 주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아늑한 잠자리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요일인 8월 23일 아침,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차장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인 이들은 이날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고모 할머니 주택을 '러브 하우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나온 것. 이들은 승합차 2대에 나눠 몸을 실어 곧장 신평리로 향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승합차에서 도배지와 장판,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을 마당에 꺼내 놓고 집에 있던 살림을 다 꺼낸 뒤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마루와 부엌 등 집안 구석구석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맡은 역할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도배지를 바르기 전에 벽과 천장에 신문지를 바르거나 우레탄폼 등으로 쥐가 들락거릴 만한 구멍들을 막았다. 커다란 대야에 도배용 물을 풀고, 도배지를 잘라내 붓으로 물을 칠하고, 신문지를 바른 벽과

천장에 도배지를 발라 나갔다. 마루와 작은 방에는 장판을 새로 깔았다. 낡은 유리창은 새시 유리창으로 바뀌었다. 모두 익숙한 손놀림이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작업을 하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의 이마에는 금새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이들의 작업을 하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자 수박을 먹음직스럽게 잘라 건넸다.

이동안 자원봉사연합회장은 "와서 보면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구의 집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변모시켰다.

올해에도 대림산업으로부터 2000만원을 후원받은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저소득가정 가운데 사회복지사와 대림산업 담당자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선정한 제주시 4가구와 서귀포시 10가구 등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8월말 현재 14가구 가운데 7가구의 집이 새롭게 단장됐다.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에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하는가 하면 마당으로 나가지 않아도 물을 쓸 수 있도록 부엌에 싱크

2005년 이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귀한 시간 쪼개 힘 보태

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새 집을 지어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할머니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다"고 말했다.

이날 고 할머니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는 2001년부터 제주항 외항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대림산업은 2005년 이후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해마다 2000만원을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하면, 이 후원금으로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재료를 구입하고, 자원봉사자들은 힘을 보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왔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47가

대를 새로 설치해 수도를 연결했다. 이제 할머니는 추운 겨울 밖에 나가지 않고 따뜻한 실내에서 설거지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찬바람이 들어오던 창호지 창문도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말끔하게 정돈됐다.

집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도 씻기가 불편했던 한 할머니의 집에는 마당에 패널로 목욕탕을 설치하고 가스순간온수기를 달아줬다.

친척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인 소년 가정의 집에는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싱크대를 교체하고, 수납장과 새시 등을 새로 설치해 집안 환경을 바꿔 즐거운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대림산업 이원민 소장은 "제주항 외항공사를 시행하면서 제주에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활동을 하기로 하고 매년 2000만원을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제주지역거점 평생학습 중심대학 제주한라대학

교육과학기술부 국비 전액 지원 특별과정

▶ 교육 과정

과 정 명	인원	관 련 자 격	개강일	시 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30	코디네이터	9. 7	월 19:00~22:00
제주향토요리사	30	-	9. 8	화,목 19:00~22:00
향토갈옷디자인 및 천연염색	20	-	9.12	토 15:00~18:00
재활승마	20	-	9. 9	수 15:00~18:00
교통사고 분석사	30	교통사고감정사	9. 8	화,목 19:00~22:00
비만관리 지도사	30	-	9. 7	월,수 19:00~21:00
부동산경매컨설팅	30	부동산 권리분석사	9. 7	월,수 19:00~22:00
부동산실무 컴퓨터	20	-	10.29	화,목 19:00~22:00
미래설계(공인중개사)	30	공인중개사	8.10	월,토 10:00~13:00
정보통신 설비사	30	-	9. 7	월,수 19:00~22:00
장례지도사	20	-	9.10	목 16:00~19:00
한문지도사	20	한문지도사	9.12	토 13:00~16:00
독서치료사	20	독서치료사	9. 8	화,목 14:00~16:00
노인체육복지지도사	20	노인체육지도사	9. 8	화,목 17:00~19:00
간병사	30	간병사	9. 8	화,목 19:00~22:00
전통차 예절지도사	30	-	9. 8	화,목 19:00~22:00

1. 원서접수 및 교육

가. 교육기간 : 2009. 9. 7 ~ 12. 21(15주)

나. 접수기간 : 2009. 8. 27 ~ 9. 11

다. 접수방법

- 평일 09:00~17:00(단, 토요일 휴무)

- 방문접수, 전화접수 가능

라. 문 의 처 : 064)741-7595, 7594,

<http://www.hc.ac.kr>

2. 제 출 서 류

지원서(소정양식 1부)

3. 지 원 자 격

성인(학력 및 자격제한 없음)

4. 교 육 비

전액 국비 지원(단, 직장인 학비 70%감면)

5. 기 타 유 의 사 항

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실직자, 미취업자, 조손 및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족, 저소득자 우선 선발

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총장명의로 수료증이 수여되며, 자격증취득과정 이수자는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교통비, 육아 교육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해당자에 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무료초빙특강 단 / 회 강의로 공인중개사 민법 최동영리

김 동 련 교수 현)건국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및 학원특강

장소 : 제주한라대학 대회의실, 일시 : 2009. 9. 6(일) 14:00~18:00

제주한라대학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단



제주한라대학
CHEJU HALLA COLLEGE

690-7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 TEL. 064)741-7575, FAX. 064)747-3989
38 Halladaehakno Jeju City, Korea / <http://www.hc.ac.kr>

